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대림 제4주일

2024년 12월 22일 / 제669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석근수 제2독서 한수현 / 입당 92 봉헌 511, 510 성체 178, 153 파견 89  
Narrator George Hegarty 1<sup>st</sup> Reader Sylvia Sicut 2<sup>nd</sup> Reader Gabriel Lee

입당송 |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 미카 5,1-4

화답송 | 시편 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제2독서 | 히브 10,5-10

복음환호송 | 루카 1,38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음 | 루카 1,39-45

영성체송 |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12월 22일	주일학교 YES	Fr. Gus
12월 29일	주일학교 NO	Fr. John
1월 5일	주일학교 NO	Fr. Augustine
1월 12일	주일학교 YES	Fr. Jim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테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예흠 요한사도, 배비인 알비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마리아들이 되기

성탄을 코앞에 둔 대림 제4주일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납니다. 두 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본받아야 할 지점은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즉 석녀였으나 하느님의 사람을 낳았고,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로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느님을 낳는 것을 배웁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엘리사벳처럼 석녀이면서도 하느님의 사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석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 석녀가 되어 인간을 낳는 데는 불능자가 되고 하느님을 낳는 데는 가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은 없지만 하느님을 낳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능력 지상주의 사회이고 그래서 갖가지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도자들도 성덕으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기보다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고, 그래서 자기 계발을 위해, 자격증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하느님을 낳을 수 없으니 하느님을 낳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복음의 엘리사벳과 많은 성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무능력자가 되어 하느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하느님을 낳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빈 자궁을 만들고 나를 빈 구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제 생각에 그것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공동선을 위해 자기주장을 꺾고 다른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자기 말은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의 주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10,9)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모 마리아가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성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오늘, 나의 말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 나를 빈 자궁과 구유로 만들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또 다른 마리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신성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지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우리는 어머니 들입니다. 표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는 그분을 낳습니다."(《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0절)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 |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동증조절, 체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b>STAR태권도</b> STAR TAEKWONDO 跆拳道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b>N² ART &amp; DESIGN</b>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b>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b> <b>탐탁 부동산</b>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b>미술교실</b> 전문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 2. 우리에게 교리가 왜 중요한가요?

글/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교리가 왜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미사 참례를 비롯한 성사 생활과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당의 사도직 단체 활동, 말씀살기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리교육은 세레나 견진을 준비할 때나 받는 기초적인 것 또는 학구열 높은 소수의 신자들이나 찾아 듣는 것 정도로 여겨지는 듯합니다.

이는 교리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이론적이며 어려운 것이어서,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처럼 어차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 파고 들어봐야 머리만 아프고 결국엔 그냥 믿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으로 정립된 체계적이며 이론적인 교리들은 우리의 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 “계시는 생활의 궁극 의미를 다루며, 복음의 빛으로 삶 전체를 비추어 삶에 영감을 주고 삶에 의문을 제기”(현대의 교리 교육, 22항)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이며 총괄적인 교리교육을 통해 우리는 막연한 믿음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삶에 뿌리 내린 신앙, 삶의 증거로 그 신앙을 전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항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구성이 보여주는 바와 같

이 교리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교의 신비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그 신비를 기념하고 거행하는 전례 행위에 대한 내용과 우리 삶의 지침들, 그리고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교리교육은 교회 생활 전체와 밀접하게 관련”(가톨릭교회 교리서, 7항)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성사와 기도에 있어 교리 지식들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 주어 참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참 행복을 향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운동을 배울 때 기초적인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며 실력이 늘지 않을뿐더러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교리교육을 통해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 교리 지식은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사회 문제와의 참여에 있어 교회의 가르침은 세상의 다양한 논쟁들 속에서 참된 복음의 기준을 제대로 확립하도록 그 중심을 잡아 줍니다. 기초부터 잘 다잡시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1베드 3,15)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물어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가진 희망에 관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b>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b>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b>HANLEES AUTO GROUP</b>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b>SUE CHO</b> CELL: 530-220-2848</p>	<p><b>PARK CHIROPRACTIC</b>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b>HARMONY ACUPUNCTURE</b>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amp;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b>Elizabeth Jihyun Kim, DDS, MS</b>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b>COMPASS</b>  <b>AIDEN KIM</b> 에이튼 킴 (나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p>
<p><b>West Dublin PETSMART</b> <b>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b>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b>James Golf Class</b>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b>SUSHI HANABI</b>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p>



■ 12월 27일은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심에 감사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또한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주님 성탄 대축일 및 송년·신년 주요 전례 일정

- 12월 24일(화):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오후 8시, 한·영 통합 미사) ※ 미사 전례는 매일미사 146쪽 참조
- 12월 25일(수): 주님 성탄 대축일 (오전 9시 30분, 한·영 통합 미사)
- 12월 29일(주일):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
- 12월 31일(화): 송년 미사(오후 8시, 한·영 통합 미사)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 미사
- 2025년 1월 1일(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오전 9시 30분, 소성당)
- 1월 2일(목) - 3일(금): 평일 미사 없음
- 1월 5일(주일): 주님 공현 대축일
- 1월 9일(목): 성시간(주님 공현 대축일 후 목요일)

■ 2024년 대림시기 말씀살기

- 갈라티아서·에페소서·필리피서·콜로새서·테살로니카서 묵상
- 하루 5분, 성경 읽기
- 묵상 노트 다운로드: [www.tvkcc.org/advent2024/](http://www.tvkcc.org/advent2024/)

■ 가톨릭 교리 관련 새 연재 안내

- 이번 주일부터 후보 3면에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님 (춘천교구 성산 본당 주임)의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가 새롭게 연재됩니다.
- 유익한 내용 나눠 주시는 안효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산타와 함께 하는 주일학교 성탄 행사 (PTA 주관)

- 일시: 12월 24일(화),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후
- 내용: 미사 참례 어린이·학생 대상 산타 선물 나눔

■ 임마누엘 잔치(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행사) 안내

- 일시·장소: 12월 24일(화), 오후 6시부터·체육관
- 내용: 구역 및 단체 발표회(오후 6시 - 7시 40분), 리셉션(성탄 밤미사 후) ※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오후 8시, 대성당)
- 문의: 김선기 시몬(510-579-6695)

■ 성모회 친교 모임 후원을 위한 짜장 소스 현장 판매

- 일시: 12월 29일(주일), 한국어 미사 전·후
- 판매 품목: 일반 소스(\$10) / 해물 소스(\$12)
- 당일 주문과 당일 결제입니다.

■ 트라이밸리 재속프란치스코회 2025년 1월 월례모임

- 일시·장소: 1월 12일(주일)·RoomB
- 문의: 유인숙 요한나

■ 2025년 울뜨레야 신년모임

- 일시·장소: 2025년 1월 5일, 오후 12시·소성당
- ※ 11시부터 체육관 앞에서 간단한 간식이 제공됩니다.
- 문의: 김현희 바드리시아(510-396-4740)

■ 2025년 새해 달력 배부

- 2025년 새해 달력을 반별로 배부합니다. (개별 수령은 사무실로 문의)

■ 2025년 간식 봉헌 신청

- 문의: 성모회 부회장 구자영 테오도라(925-660-9839)
- 2024년 한 해 동안 봉헌해 주신 모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558	\$635	\$8291.45	\$35	\$40	\$10159.45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박주암(12), 배성준(11), 석근수(11), 윤혜숙(11), 이주일(10-12), 이줄리아(7-12), 이형숙(1-12/25), 이희선(10-12), 최원숙(11)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이희선(10-12), 최원숙(11)

- Bishop's Appeal

이희선(10-12), 최원숙(11)

- 건축봉헌금 이원숙, 울뜨레야

1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희망의 순례자들

이번 희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알아뵈도록 도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 희망의 순례자로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합니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